

광주 공사액 감소에도 건설업체 증가율 1위

주택시장 호황에 지난해 총 2115곳...전년비 8.5% 늘어 전남은 56곳 늘어 5114곳...부동산 대책 여파 경영난 우려

주택시장 호황 등으로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건설업체 수가 증가한 가운데 광주지역 건설업체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내 건설공사에서 지역 건설업체(본사)가 해당 지역의 공사를 수행한 공사액 비중은 전년 대비 광주는 줄고 전남은 늘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6년 기준 건설업조사 결과'(기업실적 부문·본사 소재지 기준)에 따르면 전국 건설업체는 6만 9508개로 전년 6만 7897개에 비해 2.4%(16117개) 증가했다.

지역별로 광주는 2115개로 전년 1950개

보다 8.5%(165개) 늘었다. 이는 건설업체 수가 감소한 세종(-8.5%)을 비롯해 대구(6.2%), 울산(5.6%), 대전(4.1%), 부산(2.7%), 인천(1.3%) 등 특·광역시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전남지역 건설업체는 5114개로 전년 5058개에 비해 1.1%(56개) 증가했다. 국내 건설공사에서 지역 건설업체(본사)가 해당 지역의 공사를 수행한 공사액 비중은 광주와 전남이 대조를 이뤘다.

국내 공사액 중 광주에 본사를 둔 건설업체가 광주에서 공사를 수행한 금액은 1조 6070억원으로 국내 공사액(3조 9050억

원)의 41.2%를 차지해 전년 44.2%(국내공사액 3조 6630억원·본사 소재지 공사액 1조 6200억원)보다 3.1% 감소했다.

반면 전남에 본사를 둔 건설업체가 전남지역에서 공사를 수행한 공사액은 6조 760억원으로 국내 건설공사액 10조 7380억원의 56.6%를 차지해 전년 54.5%(국내 건설공사액 11조 1390억원·본사 소재지 공사액 6조 670억원)에 비해 2.1% 증가했다.

지난해 광주지역 건설계약액은 4조 5000억원으로 전년 3조 6000억원에 비해 9000억원 증가했고, 전남도 9조 6000억원으로 전년 9조 5000억원에 비해 1000억원 늘어났다.

이와 관련 지역 건설업체 관계자는 "지역 주택시장 호황 등으로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건설업체 수가 증가한 것은 사실

이지만 핵폭탄급으로 평가받는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업체들이 물량발주, 분양 등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정부가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해 건설업체 전체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됐다"며 "지역에서 굶주린 사업 예산이 요구액보다 대폭 삭감되면서 대형 건설사뿐 아니라 하도급업체, 장비·자재 공급 업체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전국 건설공사 매출액은 356조 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6%(28조 1000억원) 증가해 2008년(60.7%) 이후 8년 만에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했다. 토목건설업이 부진했으나 건물건설업의 호조로 국내 건설매출액은 전년대비 29조 원(10.2%) 증가했다. /김대성기자bigkim@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478.53 (-3.35)
- ↑ 금리 (국고채 3년) 2.10% (+0.01)
- ↓ 코스닥 766.18 (-4.32)
- ↓ 환율 (USD) 1084.90원 (-3.60)

뿌리기술 전문기업 애로 청취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청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청(청장 김진형)이 19일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3층 나눔공간에서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해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뿌리기술 전문기업은 뿌리산업(주조, 금형,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가공, 용접) 분야에서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하고 유망한 기업을 선별해 기술개발 자금과 인력 등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로 현재 광주·전남 지역 38개사(전국 626개사)가 지정돼 있다.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된 업체는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기술혁신개발, 창업성장 등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과 산업기능요원 제도,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 등

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참석한 은혜기업(대표 나용근)은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생산성이 110%향상 되어 30% 비용절감 효과를 이루었다"면서 "이러한 사업들은 R&D 지원받는 회사에 상관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뒷받침 되었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또 김상두(주)현성오토텍 상무는 "뿌리산업의 열악한 생산 환경 등을 가만하여 뿌리기술 전문기업에 대해 스마트팩토리사업 우선지원과 운영자금 융자 한도 등이 확대 되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김진형 광주전남청장은 "뿌리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사업으로 R&D, 스마트팩토리 사업, 자금지원 등의 확대를 통해 광주·전남 뿌리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광주은행 원더랜드에 산타 오셨네 지역사랑봉사단 소외 아동에 선물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은 지난 18일 광주은행 본점 1층에 위치한 KJ원더랜드에서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원더랜드 산타오셨네'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성탄절을 맞아 성탄소원 선물 대상자로 선정된 결손가정 아동 25명이 참석했으며, 광주은행 지역사랑봉사단 직원들이 직접 산타로 분장해 500만원 상당의 자전거, 책상, 이불세트, 패딩잠바, 운동화 등 소원 리스트에 있는 선물을 전달했다. 또한, 본점 1층에 개장한 KJ원더랜드를 관람하고, 금융박물관에서 금융교육 체험도 함께 했다.

송중욱 광주은행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올바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 아동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은행은 지난 18일 본점 1층에서 성탄절을 맞아 소원선물 대상자로 선정된 결손가정 아동들에게 500만원 상당의 선물을 전달했다. 왼쪽부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 김은영 본부장, 광주은행 송중욱 은행장, 광주은행 정순자 부행장. <광주은행 제공>

현대기아차 6종 '美 굿디자인상' 수상

제네시스 G80스포츠, 현대자동차 쏘나타, 기아자동차 스티어링 등 현대차그룹의 6개 차종이 미국의 유력 디자인상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19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제네시스 G80스포츠·콘셉트카 GV80, 현대차 쏘나타 뉴 라이즈(현지명 2018쏘나타), 기아차 스티어링·니로·리오 총 6개 차종이 '2017 굿디자인 어워드'의 운송 디자인 자동차 부문에서 수상했다.

굿디자인 어워드는 미국 시카고 아메리칸 건축 디자인 박물관과 유럽 건축·예술·디자인·도시 연구센터가 협력해 수여하는 상으로 1950년 시작돼 올해 67회째를 맞았다.

올해는 전 세계 36개국에서 출품된 900여점 중 심미성, 혁신성, 에너지효율, 환경 친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작을 선정했다.

/김대성기자 bigkim@연합뉴스

"지역 노동시장 이중구조·미스매치 개선 시급"

한은 광주·전남본부 분석

경제활동 참가율 전국 하위권

지자체·경영자·노동계 협력 필요

광주·전남지역의 청년고용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성장동력 확충으로 지역경제 성장세를 확대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미스매치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경제조사팀(과장 박지선·조사역 문세미)은 19일 발표한 분석 자료를 통해 광주·전남지역 청년고

용 부진 현상은 성장세 둔화와 함께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사팀이 16개 광역시·도별 자료를 실증분석한 결과 광주·전남지역의 청년 고용률은 경제성장률, 비정규직 및 양질의 일자리 비중 등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것이다.

올해 3분기 광주와 전남의 청년 고용률은 각각 38.2%, 24.2%로 광역시(41.1%)와 광역도(41.4%)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3분기 청년 경제활동 참가율은 각각 41.4%, 37.4%로 광역시(45.4%), 광역도(44.8%) 평균보다 낮았다.

금융위기 이후 7년간 광주의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은 그 이전 7년에 비해 2.2%포인트 줄어든다. 광역시 평균(-2.0%포인트)보다 더 크게 감소했고, 전남의 감소폭도 -1.8%포인트로 광역도 평균(-1.7%포인트)을 상회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청년층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 수는 이보다 더디게 증가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올해 8월 현재 광주와 전남의 전체 비정규직 비중은 각각 37.0%, 39.1%로 광역시 평균 32.7%와 광역도 평균 36.0%를 상회하고 있다.

조사팀은 이 같은 요인들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워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인적자본 축적 저해, 결혼 및 출산율 저하 등 지역 성장기반 자체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역내 소비를 진작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미스매치를 완화하고 취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 경영자, 노동계, 학계 등 지역사회의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사팀은 "일·학습 병행제로 역량·기술 간 불일치를 완화하고 지자체 일자리 매칭 서비스와 직업훈련을 강화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bigkim@

'묻지마 소액 대출' 사라진다

내년 상반기 대부업 감독 강화

청년·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겨냥한 대부업체의 무분별한 소액(300만원 이하) 대출이 내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사라진다. 감독 당국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대출 쪼개기 등 편법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위원회는 행정자치부와 서울시 등 관계기관,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대부업 감독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태스크포스는 29세 이하 청년층과 65세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소득·채무

확인 의무 면제 조항을 우선 삭제한 후 다른 계층으로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게는 채무자 신용상태 조사를 의무화하고 대형 대부업자부터 자체 신용평가체계(CSS) 도입을 유도하는 것도 무분별한 대출을 억제하는 맥락이다.

CSS 도입 추이를 감안해 대형 대부업자부터 금리인하 요구권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출시 만기·상환방식별 이자 부담을 명시하는 등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대부업권 심사권을 도입하는 조치도 시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금남새마을금고와 든든한 미래를 위한 약속

정기에탁금 → 1년 최고 **2.4%**

정기적금 → 1년 **2.2%** 2년 **2.3%** 3년 **2.4%**

입출금이 자유로운 자신만만 자유예탁금 → 단 하루를 맡겨도 최고 **1.6%** (금액에 따라 이율 차등 적용)

회원의 소중한 꿈이 담긴 자산! MG금남새마을금고가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MG금남새마을금고 대인본점 ☎ 223-8007, 232-7251 총장지점 ☎ 223-7217, 223-7218

2017년 한 해 동안 금남새마을금고를 이용해 주신 고객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술년 새해에도 최고의 금융서비스를 지향하며 고객 여러분의 꿈을 지켜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